유년의 트라우마와 반복강박* 아나 마리아 마투테의 『첫 번째 기억』을 중심으로

전미연
서울대학교

전미연(2023), 유년의 트라우마와 반복강박 - 아나 마리아 마투테의 『첫 번째 기억』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2), 119-143.

초록 아나 마리아 마투테(Ana María Matute)는 스페인의 '50년대 세대(la generación de medio siglo)'를 대표하는 일원이다. '50년대 세대'는 비록 유년기에 내전을 경험하지만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상흔으로 각인된다. 마투테 작품에 나타나는 유년의 트라우마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유년의 트라우마는 기억의 층위에 통합되진 않지만 반복기를 거친 후 강박적으로 사후에 출현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도 개인 트라우마와 유사하게 방어 기제의 작동으로 잊혀진 후, 잠재기를 거쳐 반복강박의 형태로 발현된다. 본고에서는 마투테의 소설 『첫 번째 기억』을 중심으로 유년의 트라우마 양상을 반복강박으로 발현되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코 부르주아 가정의 억압과 속박에서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외상성 애착, 이중 사고에 의한 현실회피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마요르카 섬의 추에타에 대한 반유대주의 역사, 카인과 아벨 신화를 통한 인류 역사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와 상호 공명하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살아남은 자의 윤리적 책무로서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트라우마 각성이 지닌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아나 마리아 마투테, 유년의 트라우마, 역사적 트라우마, 반복강박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358).

I. 서론

1925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아나 마리아 마투테(Ana María Matute)는 ‘전쟁의 아이들(Los niños de Fanco)’ 세대로도 불리우는 ‘50년대 세대(la generación de medio siglo)’의 대표적인 일원이다. 후안 고이티솔로,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 이그나시오 알데코아 등과 같은 작가가 속한 ‘50년대 세대’는 비록 유년기에 내전을 경험하지만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상흔으로 각인된다. ‘50년대 세대’ 작가가 쓴 다수의 작품에서 내전의 집단 기억은 결정적인 상흔이자 특히 유년의 기억은 중심 주제로 제시된다. 이들의 작품에서 심리학 용어에 대한 비판적 집착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통스러운(angustiado)’, ‘병리적인(neurotico)’ 등과 같은 용어는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할 때 주로 제시된다(Frame 2003, 129).

불행한 유년에 대한 주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후안 고이티솔로, 미겔 텔리베스,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시오 등과 같은 작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었는데, 마투테 작품에 이르러 스페인 문학사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는다. 마투테는 여덟 살에 요양 차 만시아 데 라 시에라의 조부모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당시 느낀 환멸과 외로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과 관련된 개인 경험은 이후 작품 세계에 영감을 주게 되었다. 다수의 작품에서 병으로 인해 유년기에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직면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유년기를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상실감은 부패한 어른들의 세계와 대립되며 형상화된다.

마투테에게 유년기는 인생 전반에 있어 한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이는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와도 무관한 채 영원한 현재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 시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즉 마투테에게 유년시절은 독립적 시기이므로 성인 단계로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유년기는 완벽하고 완전히 폐쇄된 삶이다. 아이가 어른이라는 존재에게 양보하기 위해 죽은 것이다. 따라서 마투테에게 아이는 창조물 중 가장 고독한 존재인 것이다(Matute 1961, 133). 또한 마투테는 마

드리드 일간지와와의 한 인터뷰에서 아이는 성인의 반영물이 아니며 반대로 성인은 유년의 작은 조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변화한다면, 삶의 전반에서 항상 악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투테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유년기는 평온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기적이며 조숙하고 잔인하고 본질적으로 슬픔과 고독이 지배하는 우울한 세계로 제시된다. 아이를 이상화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기괴함, 사악함, 비뚤어진 순수함을 폭로한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지만 유년의 영혼을 간직한 채 내적분열을 경험하는 성인이 된다. 아이와 성인이라는 분열된 주체가 완벽히 결합되어 마치 삼 쌍둥이처럼 한 개인 안에 공존하며, 분리되거나 소멸될 때까지 각각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긴다(Pérez Bernardo 2010, 50).

본고에서는 1960년도에 출간된 마투테의 소설 『첫 번째 기억』¹⁾을 중심으로 유년의 트라우마 양상을 반복강박으로 발현되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프랑코 부르주아 가정의 억압과 속박에서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외상성 애착, 이중 사고에 의한 현실회피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마요르카 섬의 추에타에 대한 반유대주의 역사, 카인과 아벨 신화를 통한 인류 역사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와 어떻게 상호 공명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살아남은 자의 윤리적 책무로서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트라우마 각성이 지닌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II. 유년의 트라우마

1. 심리적 방어기제: 외상성 애착

작품에서 화자인 성인 마티아는 1936년 여름과 가을, 14세 소녀였던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 사건을 회상한다. 1936년 내전이 발발하자 마티아는 마요르카 섬에서 프락세데스 외할머니, 에밀리아 이모, 사촌 보르하

1) Ana María Matute(2019), *Primera memoria*, Barcelona: Austral.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와 함께 지내게 된다. 본토와 물리적 거리가 있는 섬에서 머물렀기에 내전은 마티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련의 트라우마 사건들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명하며 상흔을 남기게 된다. 비록 할머니는 전쟁이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관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결코 내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방학 중에 갑작스럽게 발발한 내전은 마티아에게 기대했던 방학의 기쁨을 빼앗았고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섬의 고요함 속에서 내전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다.²⁾

보르하는 15살, 나는 14살이었고 우리는 강압적으로 섬에 머물러야만 했다. 우리는 종종 지루했고 섬의 고요함에, 위선적인 평화에 화가 났다. 우리의 방학은 전쟁으로 인해 습격당했다. 유령처럼 멀고 때로는 가깝게 느껴지는 전쟁, 아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던 것 같다.(13)

마요르카 섬은 외관상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근원적 폭력의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 내전은 마티아의 아버지가 공화당 소속으로, 보르하의 아버지가 프랑코파 소속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될 뿐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계급에 기반한 갭단 전쟁을 벌인다. 마요르카 섬의 반유대인 정책에 기인한 오래된 갈등은 프랑코파 타론히 형제를 중심으로 심화된다.

작품 첫 장에서 마누엘의 아버지 호세 타론히가 좌파 이데올로기로 인해 프랑코파인 타론히 형제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며, 마티아와 보르하는 호세 타론히의 시신을 목격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마티아는 호세 타론히의 아들이자 섬에서 소외된 가족의 일원인 마누엘과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보르하는 마누엘이 자신이 존경하는 호르헤의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2) 마요르카 섬의 바다는 배가 지나가지 않는 곳, 가정부 안토니아에게 들었던 공포의 흔적도 없는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마요르카 섬은 내전으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섬이라는 밀폐된 공간은 밀실 공포증을 불러 일으킨다. 슈나이더(Lauren Schneider)는 고립된 공간에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상황 자체가 트라우마로 각인된다고 평한다. 억압된 것이 반복적으로 귀환하며 주체를 계속 소유하려는 트라우마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2011, 14).

되자 마누엘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보르하는 할머니로부터 훔친 돈 상자를 마누엘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후, 마누엘을 절도죄로 고발하여 교정기관에 투옥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마티아는 마누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보르하의 협박에 못 이겨 보르하와 공모하여 배신 행위를 하게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면화한 채 성인이 된다. 갱단 싸움을 주도하는 보르하의 폭력성과 여자 아이로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는 마티아의 취약성은 작품 전반을 통해 뚜렷이 대비되는데, 결국 아이들의 폭력성과 취약성은 상호 공모와 배신을 통해 마무리되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그렇다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모와 배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폭력성과 취약성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우선 마티아가 처한 강압적인 가부장적 속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기제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만성적 아동기 학대는 주로 공포가 만연한 가족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강압적인 전제주의적 통제 환경에서 건강한 양육 관계는 파괴된다. 아이들은 외부 세상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과도 고립되며, 가장 힘이 센 어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보살필 책임이 있는 다른 어른 역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아이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은 무관심이자 완전한 배신의 상황에 해당된다(Herman 2015, 122).

작품에서 아이들 사이의 배신과 공모는 배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양육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첫 장에서 마티아는 할머니의 외양 묘사를 시작으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³⁾ 할머니는 가부장적 담론의 승계자, 카톨릭 교회의 협력자, 프랑코 정권의 동조자, 전통주의적 가치의 확고한 옹호자로 평가받는다(Vadillo 2012, 195). 혼들의자에 앉아 쌓안경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며 부르주아 계급의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교회 세력과 결탁하여 정착민들의 삶을 긴 축수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할머니는 가정에서도 마티아를 억

3) 이마에 곱슬곱슬한 웨이브가 있는 흰 머리를 내려뜨린 할머니는 성난 인상을 풍겼다. 할머니는 거의 항상 황금빛 손잡이가 달린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말처럼 강인했기에 그것이 필요 없었다.(11)

압하고 통제한다. 할머니의 집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곳으로 마을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공간이다. 반면 마티아에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전장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유모였던 마우리시아와 함께 생활했던 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각인된다. 마우리시아와 함께 살던 곳은 숲과 강이 있는 곳, 동화 속 엘리스와 걸리버가 사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마요르카 섬은 폭력처럼 느껴지는 태양이 감시하는 공간, 강이 흐르지 않으며, 묘한 빛깔의 야생화들이 돌부리를 비집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마우리시아의 죽음 이후 마티아는 자신의 보호자가 할머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책임을 유기하고 있음을 토로한다. 집안 사람들이 마티아의 깡마른 몸 상태를 걱정하며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그래요, 나를 돌봐주어야 했어요. 나를 돌봐야 했던 그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70). 할머니는 공화파인 마티아의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늘 아버지를 비난했기에 마티아는 아버지로 인한 모욕과 굴욕을 견뎌야 했다. 강압적인 태도를 행세하는 할머니가 위협적인 양육자라면, 에밀리아 이모는 방임하는 양육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에밀리아는 남편이 전쟁터에 있지만, 전쟁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문, 잡지 등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피아노 연주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남자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며 마티아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 마누엘의 무죄를 마티아로부터 듣게 되지만 오히려 보르하의 범죄를 묵인하라고 하며 마티아의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물로 나타난다.

적절한 양육자가 부재한 학대 아동이 경험하는 배신의 양육환경에서 마티아는 만성적 속박을 경험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발현한다. 만성적 속박 하의 아이들은 가해자의 내적 상태에 즉각적으로 자신을 조율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분노, 성적 흥분, 중독, 해리의 신호를 보내는 가해자의

표정, 목소리, 몸짓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익히게 되는 것이다(Herman 2015, 174-175). 마티아는 할머니의 표정, 목소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과각성을 표출한다. 할머니의 몸짓, 표정 등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자동화되어 각성을 유발한 위험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부터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과각성을 통해 발견되는 마티아의 감정적 취약성은 지속적인 숙박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공격의 경고를 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할머니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복종하는 보르하는 부르주아 계급 사회의 다양한 사회악들을 체화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폭력을 일삼으며 약자를 괴롭히고, 하층민 아이들을 무시하며, 거짓말을 일삼는다.⁴⁾ 도덕적 타락의 상징체로서 유년기의 왜곡된 순수함을 대변하며 성인 세계의 타락한 규범을 모방하는 위선적인 보르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에 두고 누구에게도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티아를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며 라우로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내에 두려고 한다. 마티아는 우파 부르주아 계층 이익을 우선시하며 강압적 태도를 일삼는 할머니의 행동을 모방하며, 하녀 안토니아의 아들인 과외 선생 라우로를 모욕하는 보르하의 위선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하지만 자신 역시 보르하의 통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르하가 시키는 일을 따르게 되며 꿈에서조차 보르하에게 끌려다니는 악몽을 꾸다. “보르하가 나를 사슬로 묶은 채 환상극 속의 꼭두각시처럼 끌고 가는 꿈을 꾸었다. 저항하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더 강력히 나를 잡아 당겼다”(25).

4) 보르하는 도둑이었다. 그가 악을 획득했는지 타고났는지 잘 모르겠다. 보르하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도둑질을 했는데, 특히 그에게 절도 행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 자신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발각될까 두려움에 떠는 위험 상황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물론 그에 대한 할머니의 깊은 신뢰와 그의 결백 주장은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112)

마티아가 보르하와 맺은 애증의 관계는 일종의 ‘외상성 애착(traumatic bond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외상성 애착 관계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전지전능하고 신적 권위를 지닌 것만 같은 대상을 강렬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주로 발생한다. 가해자와 맺은 짝은 ‘생존의 기본 단위(basic unit of survival)’로 작용한다(Herman 2015, 112).

만성적인 아동기 학대의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확고한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도 파편화된 채 타인과 독립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 따라서 성격은 ‘원자화(atomization)’ 되는데 이것이 그나마 아이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다(Herman 2015, 129). 마티아는 보르하의 폭력성을 비난했지만 타인과 독립적 관계를 맺지 못하며 ‘원자화’된 채, 보르하와 외상성 애착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보르하는 할머니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잘 알았다. 할머니 앞에서 부드럽고 점잖게 행동했다. 유산, 돈, 땅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보르하 같은 배신자, 사기꾼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슬픈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할머니 앞에서는 사기꾼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30)

보르하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존재이며 외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듯이 병리적 애착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⁵⁾ 결국 마티아는 보르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취약성과 폭력성은 상호작용하며 상호 공모와 배신으로 귀결된다. 마누엘을 통해 부르주아 상류 계층의 하층민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부당한 일임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며 처음으로 타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던 마티아였지만, 마누엘에게 절도 누명을

5) 마티아는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가 명명한 ‘기이한 소녀(chica rara)’의 특징을 지닌다. ‘기이한 소녀’는 고아이거나 부모로부터 정상적 양육을 받지 못한 채 가부장적 억압의 환경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정체성 왜곡을 경험한다. 마티아는 가부장적 억압의 환경에서 할머니의 권위에 불순종하며, 반항적 태도를 보인다. 결혼에 대한 무관심, 규범에 대한 위반, 소년들과의 친밀감 표출 등의 저항적 특성을 나타낸다. 프랑스어, 뜨개질 등 여성이 배워야 할 특정 교육을 받아야 했던 마티아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담배를 피우며 외모에 무심한 ‘기이한 소녀’의 전형적 특성을 공유한다.

씩우는 보르하에게 동조하며 침묵하게 된다. 비겁하게 침묵하던 순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개처럼 그를 따라갔다. 감히 도망칠 생각도 못한 채 배신의 숨을 쉬면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231). 방학이 끝날 무렵, 순수한 어린 시절의 종말을 상징하는 배신의 장면을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심리적 외상 연구는 세계 안에 놓인 인간의 취약성과 인간 본성 안에 놓인 악(惡)의 가능성에 직면하며, 끔찍한 사건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Herman 2015, 17). 그러므로 취약성과 폭력성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마누엘에 대한 배신 사건에 관해 증언해야 할 의무가 마티아에게 남겨진 것이다. 마티아는 보르하의 폭력성을 비난하고 자신은 약자인 마누엘을 옹호한다고 확신하며 순수함에 기반한 도덕적 이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던 도덕적 이상은 자신의 내면에도 악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철저히 깨어졌다. 원칙을 배신하고 마누엘을 희생시켰으므로 공범자가 되었고, 수치심, 자기 혐오, 패배감으로 얼룩진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동화세계로의 회피: 이중사고를 통한 현실변형

할머니의 마티아에 대한 속박은 생활 전반을 통해 일어난다. 할머니는 수녀 학교에서 퇴학당한 마티아를 못마땅해하며 기도 습관, 과외학습, 성공적 결혼을 위해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외양 가꾸기 등 정신적, 육체적 영역에서 통제한다. 할머니에게 아름다움은 경제력이 약한 여성에게 유일하게 유익한 것이기에 특히 외양에 관해 철저히 간섭하고 통제한다. 지나치게 큰 키, 짙마른 육체, 볼품없는 다리, 민트 카라멜을 많이 먹어서 씩은 치아, 벌어진 앞니, 주근깨 등은 모두 질책 대상이 된다. 충치의 원인이 되는 카라멜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는 등 과도한 통제가 일어난다.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보르하에게 허락된 나란잘로의 여행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욕구에 의해 자신의 육체가 처분되는 통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의존해 주도성의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억압적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기에 현실을 변형시키며 정신을 변형시킨다(Herman 2015, 123).

마티아의 현실 탈출은 보르하와 함께 외부 세계의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틈만 나면 해안가, 항공 근처로 도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록 짧은 순간의 일탈이지만 비밀리에 담을 넘어 해안가에 숨겨둔 배를 타고 모험을 즐긴다. 또래 소녀 집단보다 소년들의 세계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보르하가 집에서 흡친 담배, 술을 보르하와 함께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육체까지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마티아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기제는 ‘이중사고(double think)’를 통한 현실 변형이었다. 일반적으로 동화세계를 통해 현실을 변형시키는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적대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내면세계로의 침잠을 통해 자신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평화를 찾기 위한 책략으로 여겨진다(Galdona 2001, 207).

하지만 마티아가 사용하는 현실변형은 의식적인 동시에 무의식적이기도 한 정신적 책략으로, ‘이중사고’ 기제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악으로 분리시키는 자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허먼의 설명처럼 속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 변형에 있어 숙련가가 되어 해리의 실행, 자의적 사고 억제, 축소, 그리고 부정을 통해 현실을 변형시키는 회피의 행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2015, 107).

바람이 세계 불던 섬에서 보내는 첫날 밤, 마티아는 어둡고 습기 찬 호텔 방에서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섬에서 평생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개미가 줄지어 벽을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우리시아와 함께 했던 안전한 과거를 떠올리며 현실을 회피한다.⁶⁾

내전 발발 이전 마티아의 행복한 시간을 상징하는 사물은 종이 인형, 안데르센 동화책, 검은 인형이다. 마티아의 검은 애착 인형, 고로고는 ‘중간 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 마우리시아의 죽음 이후 분리된 대상 상실에 대한 애착 대상의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꿈 인형이나 담요와 같은 사물은 대

6) 이상한 철 침대는 알지 못하는 동물처럼 위협적이었다. 침대의 그림자는 마치 뱀, 용처럼 나를 응시하는 기이한 형상 같았다. 이불을 덮고 눈물을 닦았다. 손을 꺼낼 수도 없고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지금 생각해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찾는 것처럼, 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미지의 곳, 숲을 통과하는 기차처럼. 마우리시아를 만날 때까지, 익숙한 이미지에 근접할 때까지.(16)

표적인 ‘중간 대상’으로, 중간 대상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것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성취해내고 전체 대상 및 분리된 대상의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중간 대상을 만들어내며 그것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차적 어머니와 충분히 좋은 접촉을 경험해야 한다(Kavaler-Adler 2009, 139-140). 하지만 마티아는 어머니 대상 상실에 대한 애도가 결핍되었기에 중간 대상을 포기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중간 대상은 증독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마티아가 수녀 학원에서 퇴학당한 이유는 고로고를 빼앗으려는 교감 선생님을 발로 걷어치는 난폭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티아는 항상 인형을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며, 마누엘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결정적 계기도 마누엘의 고로고 인형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마티아가 ‘이중 사고’를 통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은 동화세계로의 회피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보르하와 마티아는 한밤중 잠이 오지 않을 때 서로만이 공유하는 수신호를 통해 오두막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티아는 파자마 속에 고로고를 숨긴 채 이야기를 듣는다. 보르하가 지겨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묻자, 마티아는 카톨릭을 믿는 우파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느 편이 승리할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확실한 건 전쟁에 대한 것, 섬에 대한 것, 혹은 우리 나이에 대한 것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수치심을 느낄 것 같다.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혹하거나 무관심한 단어로. 보르하와 기엠, 후안 안토니오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서 나는 나만의 섬을 가지고 있다. 내 옷장 한구석에 손수건, 양말 뭉치 속 지도책 아래에 내 검은 작은 인형, 고로고가 살고 있다.(109)

마티아는 공화파로 참전한 자신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할머니, 프랑코파로 내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보르하로 인해 결코 내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보르하와 기엠 갱단 사이의 싸움도,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부재 역시 이해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고르고 인형과 피터팬이 살고 있는 섬이다. 배 한 척 지나가지 않는 마요르카 섬은 피터팬이 있는 섬으로 변형되며, 마티아와 보르하의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전장은 후크 선장의 공격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었다. 정육점 갈고리로 보르하 갱단을 위협하는 기엠을 후크 선장으로 명명하는 등, 보르하와 기엠이 대립하는 갱단 전쟁을 동화 이야기를 통해 변형시킨다. 갑작스러운 내전의 발발로 인해 순수한 유년 세계로 폭력적인 성인 세계가 침입하게 되고,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는 동화의 환상 세계로 투영되는 것이다.

마투테는 안드레센의 동화 속 인물 인어공주의 정체성을 마티아에게 투영시키는데, 물고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인어가 겪는 유사한 딜레마를 마티아도 경험하게 된다. 마티아는 자신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성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괴물로 표현한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란 말인가?”(140). 괴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마티아는 자신을 인간과 동물의 중간 형태인 인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Anderson and Sheay 1989, 4-5).⁷⁾

따라서 마티아는 성과 성인 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거부감을 표명한다. 보르하가 친구들과 나누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될 뿐 성에 관해 무지하기에, 할머니가 남자아이들과의 여행을 금지하는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보르하와 라우로의 동성에 관계에 당혹해하며 보르하와 밤에 단둘이 있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마티아는 에밀리아 이모의 편지 수신인이 이모부라고 생각했지만, 보르하의 강압에 의해 편지를 보게 된 후 이모의 불륜을 알게 된다. 수치심으로 왜곡된 성 정체성을 지니게 된 마티아는 에밀리아 이모의 침실에

7) 이 논문에서는 『인어공주』 동화의 다시쓰기 형태로 마투테의 작품이 분석된다. 마티아가 왕자를 상징하는 마누엘을 인어공주와 달리 배신함으로써 동화의 결말이 수정되었다고 평한다. 진실의 순간에 칼을 휘두르는 인어를 연상시키는 결말의 마티아는 마누엘의 정원 밖에서 그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보르하의 계획을 폭로한다면 인어처럼 자기희생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마티아는 보르하가 체포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서 이모부와 이모의 성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베갯잇을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에밀리아 이모의 풍만한 육체를 자신의 불품없는 몸과 비교하면서, 풍만한 여성의 육체를 알 수 없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우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마티아에게 성인 여성이 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배신으로 간주된다. “나는 자라서 여성이 되는 시점에 있었다. 아니, 이미 여성이었다. 매 순간 나는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148). 마누엘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며, 부모님에 관해 질문하자, 남자와 여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면들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순수함을 상실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현실과 직면하는 것을 유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알바로 이모부 초상화, 타론히 형제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안토니아 등과 같은 그런 것들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어른들, 남자와 여자들은 얼마나 기이한 종족들인가? 우리는 얼마나 기이하고 터무니없는 존재인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갑자기 이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109)

마티아에게 내전, 어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반유대인 역사에 기인해 일어나는 섬에서의 분규와 갈등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삶을 침입한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이해 불가능하므로 ‘이중사고’를 통해 현실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불안한 정서적 반응을 제한하는 것이다.

III. 역사적 트라우마와 반복강박

1. 추에타와 반유대주의 역사

마투테는 작품에서 유년의 개인 트라우마를 마요르카 섬의 집단 트라우마,

나아가 카인과 아벨 신화로 대변되는 인류의 근원적 트라우마와 연계시킨다. 마요르카 섬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마티아의 유년의 트라우마와 공명하며 반복강박의 형태로 소급된다. 마요르카 섬의 고통스러운 원죄는 마티아의 유년의 트라우마의 근원에 자리 잡게 되며, 공공의 ‘첫 번째 기억’이 된다. 마요르카 섬은 수 세기 동안 개종한 유대인인 추에타에 대한 박해와 테러가 자행된 곳이다. 공화파를 지지하던 추에타는 마요르카 섬 당국이 프랑코파를 지지하게 되면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이다. 마요르카 섬의 우파 부르주아 계급은 교회 세력과 결합하여 섬의 지배 세력이었던 유대인을 증오하며 세속적 힘을 모두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다.⁸⁾

작품 첫 장에서 추에타 출신인 마누엘의 아버지 호세 타론히의 시신이 마티아와 보르하에 의해 발견되고, 호세 타론히의 살해를 둘러싼 계급 갈등이 소개된다. 프랑코파인 타론히 형제들에 의해 호세 타론히는 살해당하며 그의 개는 가족 우물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호세 타론히는 19세기 추에타의 권위를 옹호한 호세 타론히 신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로 유대인에 대한 압제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코 가라우는 1679년, 1691년 종교 재판소의 활동을 찬양하는 악명 높은 소책자를 출판했는데, 19세기 추에타의 권위를 옹호한 호세 타론히 신부는 가학적인 내용의 가라우의 책을 비방하였다.

보르하가 주도하는 소년들의 갱단 전쟁은 각자 부모의 계급과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재연하는 폭력적 놀이이다. 보르하 갱단에는 의사의 아들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영주, 관리인의 아들이 속해 있고, 기염 갱단에는 대장장이, 수레 운전사, 목수의 아들이 속해 있다. 아이들의 전쟁은 마요르카 섬의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반복강박 형태로 재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티아는 보르하와 함께 훔친 돈, 담배, 술 등과 같은 금지된 보물을 자신들의 배, ‘La Joven Simón’의 보물 상자에 숨겨두는데, 그곳에는 죽은 할아버지

8) 스콰이어즈는 마요르카 섬의 추에타에 대한 박해와 민족주의 테러의 역사와 마티아가 우파 부르주아 가정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긴장 관계에 관해 분석한 후, 마요르카 섬 역사의 순환성을 마티아의 불가피한 숙명, 좌절과 연계시킨다. 관련된 내용은 스콰이어즈의 논문 참조할 것(Squires 1998).

방에서 발견한 유대인 역사에 관한 책 또한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이 마티아의 할아버지 방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스페인이 암울한 역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과 유산을 공유한다는 것을 뜻한다(Mooney 2021, 1188). 마티아와 보르하가 비밀리에 읽게 되는 가라우의 책은 추에타의 역사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라우의 책에는 추에타들이 라푸에라 광장에서 어떻게 화형당했는지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기염 갱단에 의해 보르하, 마티아, 마누엘의 밀짚 인형이 불태워지는지는 광장이 바로 1691년 추에타들이 화형당한 곳이었다.

기염과 일당이 모닥불을 지피면서 도발을 시작하는 유대인 광장은 아주 오래전에 화재로 파괴되었는데, 마을의 낡은 모퉁이에 있었다. [...] 유대인들이 산 채로 화형당한 광장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원형의 푸른 바다는 위협적인 곳으로 바람과 하늘과 뒤섞여 있는데 그곳은 빛나는 우주가 사라지고 거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방황하는 메아리가 소멸하는 곳이다. 삶은 거칠고 머나먼 어떤 것이다.(107)

위의 인용문은 유대인 광장의 화형이 바다와 바람, 하늘, 우주와 같은 자연이 주는 위협처럼 개인의 삶에 영속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요르카 섬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잠복된 채 억압되어 있던 역사적 상흔이 현재 공포를 조성하는 바다로 상징화되고 있듯이, 개인의 삶은 인류의 트라우마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에서 트라우마 사건이 오랜 기간 잠복되어 있다가 유사한 사건을 통해 발현되는 과정을 유대인의 모세 살해와 일신론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개인의 신경증이 인류 역사 전체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16, 116). 프로이트가 설명하듯 추에타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반복강박 형태로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티아가 소년들의 갱단 전쟁이 서로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어두운 무엇인가가 자신을 흔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마요르카 섬 역사의 폭력적 순환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귀가 멍멍하고 야만적인 전쟁이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전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해를 끼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두운 무엇, 나를 흔드는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106)

마티아가 반복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이유 역시 역사적 운명의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숙명을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21).

2. 카인과 아벨 신화

마투테 작품과 성서와의 상호텍스트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특히 성서의 카인과 아벨 신화는 마투테의 작품 세계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었는데, 본 작품에서 역시 카인과 아벨 신화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마투테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기억’을 성서 속의 배신의 플롯에 기반하여 소급하고 있는 것이다.

마투테는 작품의 서문에서 신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5절 “주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취함으로써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성경구절을 소개하면서 프랑코에 의해 자행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Fernández-Babineaux 2009, 134). 마티아는 프랑코파를 대변하는 할머니의 카톨릭 신앙에 회의적이며 보르하를 위선적인 수사로 묘사하며 위선적인 종교적 태도를 비판한다.

호세 타론히의 시체 발견은 마티아와 보르하에게 트라우마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호세 타론히의 죽음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부재의 트라우마를 환기시키며 아이들이 형제 관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마티아

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은 아이들을 속이기 위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에 사람의 시체는 신문의 사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마티아에게 호세 타론히의 시체는 비현실적인 것, 거짓말, 악몽으로 느껴진다. 당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성인이 되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현재 숨결처럼 생생히 느껴진다. 모든 감각이 멈춘 상황은 자연과 대비되어 거대한 침묵으로 상징화된다. 당시 유일한 일은 한 남자가 죽었다고 되뇌이는 것 뿐이었다.

시체가 배의 용골에 조개처럼 붙어있었다. 우리가 두려워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은 두려움을 숨결처럼 느끼는 것 같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할 때, 나는 여전히 모래에서 돌아나는 부드러운 갈대와 용설란의 강렬한 푸른색을 본다. 그중 하나는 부러졌고 가장자리는 흉터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 [...]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어찌면 그것은 땅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위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태양이 구름 틈을 여는 것을 보았다. 태양의 모래와 물에 대한 강력한 지배를 느꼈다. 갈매기는 침묵했고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갑자기 우리를 에워싸는 조용한 천둥과 같았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죽었다. 그들이 죽었다. 그 남자는 죽었다.”(42)

귀, 눈, 피부의 모든 감각을 통해 정보가 정상적으로 통합되어야 비로소 자전적 기억이 된다. 하지만 시상이 망가지면 트라우마가 처음부터 시작, 중간,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지 않고 당시의 이미지, 소리, 공포, 무기력감 등 어떤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 느낀 신체 감각이 뿔뿔이 흩어진 감각의 흔적으로 기억된다(Bessel Van del Kolk 2016, 124). 호세 타론히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장면을 성인이 된 화자는 여러차례 언급함으로써 주체화되지 않은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점차 흩어진 감각의 흔적을 재구성하며 트라우마 기억을 서사적 기억으로 통합하려 노력한다. 당시 자신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위가 텅 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단지 신체적 배고픔은 아니었다”(49).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또한 호세 타론히가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달콤한 안개가 끼었다고 기억해내며,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경험을 통합하여 당시 사건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세 타론히의 죽음이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아버지 부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며, 아버지 부재로 인해 유기된 아이들이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마티아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조차 못하며 그나마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만 파편적으로 귓가에 메아리칠 뿐이다. 항상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항해서 아버지 존재를 발명해야 했다고 언급한다. 보르하 역시 비록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으며, 고아처럼 유기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아버지는 폭도들에 맞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기에 자신은 혼자이고, 아버지와 한 번도 다정하게 키스하거나 눈을 마주친 적이 없고,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날에는 온종일 빵과 물만 먹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호세 타론히의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 온 마누엘에게 배를 빌려주게 되면서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마누엘의 친아버지, 호르헤로부터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배신이 일어나게 된다. 마누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요르카 섬의 족장, 호르헤의 사생아로서 마누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히브리어로 ‘우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다. 어머니, 사 말레네의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연상시키며, 추에타 출신인 이유로 광장에서 돌로 맞을 뻔한 사건은 요한복음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성경구절을 상기시킨다(Fernández-Babineaux 2009, 137-138). 마누엘이 친부인 호르헤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의붓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호의를 거절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 폭력과 속임수, 협잡에 대해 철저히 결백하며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하다(Stevens 1971, 199).

이모 에밀리아 역시 호르헤와 혼외정사를 했으므로 호르헤가 보르하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된다. 보르하는 호르헤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만

마누엘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질투심으로 마누엘에게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마티아 역시 자신의 친부에 대해 애정을 표현하는 보르하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정의롭고 정직한 마누엘은 공화파를, 사악하고 위선적인 보르하는 프랑코파를 대변하며 보르하와 마티아는 마누엘을 배신하게 되는데 이는 카인과 아벨의 대립, 성인 세계의 내전, 즉 형제간의 대립과 배신을 상징하게 된다.⁹⁾

3.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와 각성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티아의 유년의 트라우마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명하며 반복강박 형태로 재연되고 있으며, 성인이 된 마티아는 열네 살 소녀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과거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책무를 지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티아는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와 직면하며, 발화주체로 거듭나고 트라우마로부터 깨어남을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의 존재와 비교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꿈을 통해 소환되는 강렬한 어머니의 존재는 마티아의 트라우마 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할머니에게 마티아의 어머니는 장래가 불분명한 공화파 남자와 결혼한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비난 대상이 되기에 마티아는 의식적으로 죽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한다. 보수적인 가족 사이에서 부모의 이혼과 가족을 파탄에 빠뜨린 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아버지로 인해 마티아마저 타락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상상 속에서 꾸며내야 하는 대상이자 결코 닮고 싶지 않은 존재이다. 하지만 마티아는 가정교사인 라우로의 어머니인 하녀 안토니아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부러워한다.¹⁰⁾

마티아의 아버지 존재는 전화기 너머의 희미한 소리로 제시되는 반면 어머

9) 성경에서 형제간 투쟁의 패러다임은 카인과 아벨 신화 외에도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대립에서도 나타난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는 에서와 야곱 관계가 보르하와 마누엘 관계로 비견 가능하다. 성경의 에서와 유사하게 보르하는 거짓말쟁이, 도둑, 호색가로 묘사된다(Fernández-Babineaux 2009, 140).

10) 라우로는 어쩔 수 없이 이마의 땀을 닦기 위해 손수건을 꺼냈다. 바람 한 점도 없는 날

니 존재는 마티아의 비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안토니아는 병약한 마티아가 밤에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는 습관을 걱정한다. 안토니아는 마티아가 어머니를 닮지 않았지만 잠자는 모습은 똑같아서 마치 어머니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비평가 이튼(Emily Eaton)은 성인 화자가 처해있는 제한된 자기 표현의 상황을 그리스 에코 신화에 비유한다. 헤라에게 목소리를 빼앗긴 에코는 독자적인 발화를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할 수만 있는데, 마티아의 발화는 이와 유사하여 메아리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4, 187). 마티아에게 아버지에 대한 시각적 기억은 전혀 없지만 전화를 통해 들리는 아버지의 비실체적 목소리는 남아있다. 하지만 마티아는 희미한 아버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 마티아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목소리 메아리는 아버지에게 버려진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회귀한다는 뜻이다. 성인이 된 마티아가 아버지 부재의 트라우마에 관해 증언할 수 있지만 독자를 위해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메아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할 뿐이다(Eaton 2014, 193).

반면 마티아의 어머니는 마티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즉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비언어적 발화로 나타나고, 마티아가 잠자는 동안 지르는 비명을 통해 제시된다. 결국 마티아가 잠자는 중에 짓는 원초적 표정은 모녀를 연결하는 요소이며, 무의식적인 비명은 모녀를 연결하는 ‘청각적 탯줄(auditory umbilical cord)’에 해당된다. 울부짖음을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메아리로 들려주는 것이다. 비명을 지르는 행위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발현된 것이지만, 잠자는 중에 무의식적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티아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독자는 마티아의 비명을 안토

이었다. 그 손수건에 수 놓인 이니셜을 보았을 때 어두운 부러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오픈된 입술의 창백한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가 아니라면 누가 수 놓았겠는가? 손톱 가시레기를 물어뜯었다.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비록 엄마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장난감, 책, 인형을 보내주었어. 동방박사의 날에는...’ 그런데 누가 보르하, 기엠, 치노에게 동방박사의 날에 관해 질문했던 적이 있던가? 너무나 부끄러웠다.(88)

니아의 언급을 통해서만 전달받게 됨으로써 ‘관음적 시선(voyeuristic gaze)’을 갖게 되는 동시에 ‘청각적 관음자(aural voyeur)’가 된다(Eaton 2014, 194-195).

분명 마티아의 어머니는 마티아의 무의식적인 비명 속에서,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는 서술자를 통해서만 들릴 수 있는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마티아가 비명을 통해 발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유기된 채 숙박의 환경에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발현하며 생존해왔던 마티아가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에 직면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재라는 근원적 트라우마로의 소급을 통해 마투테가 제시하고자 하는 트라우마 증언 윤리의 함의는 무엇인가? 독자에게 관음적 시선과 청각을 통해 일깨우고자 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캐시 캐루스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이트와 라캉의 꿈의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마티아의 꿈으로부터의 깨어남은 라캉이 프로이트의 꿈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깨어남의 이야기(the story of awakening)’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¹⁾ 마티아의 꿈은 자신이 외면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의 실재적 현실(the Real)을 직면하게 했다. 안토니아가 마티아에게 마티아의 어머니 역시 밤에 비명을 질렀다고 이야기하자, 마티아는 “우리 엄마는 항상 그 동화 속의 엄마일 뿐, 우리 엄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예요. 왜 항상 나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요?”(67) 라고 대꾸하며 어머니 부재의 현실에 직면하기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안토니아와 라우로 모자관계를 부러워하며 어머니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마티아의 꿈을 단순히 현실에 부재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 발현되는 프로이트식의 소원성취적 꿈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라캉이 분석하는 죽음을 마주하는 현실로의 깨어남을 위한 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티아가 꿈에서 깨어나 비

11) 라캉은 프로이트가 분석한 사례에서 아버지의 꿈과 깨어남에 주목한다. 아버지의 깨어남은 소음이나 불빛 같은 외부적 현실이 아닌 본인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아버지 내면에서 자신의 잠들어있음을 깨우치는 목소리가 들리므로 역설적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되고 아이의 죽음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잠의 기능이 아닌 깨어남의 기능이다 (Caruth 1996, 99).

명을 지르는 것은 내면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죽음이라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라캉의 ‘깨어남을 통한 응답의 요구’로 해석 가능한 것이다.

캐시 캐루스는 트라우마의 본질을 ‘파괴성(destructiveness)’과 ‘살아남음의 역설(paradox of survival)’로 설명한다. 트라우마적 신경증은 끔찍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당혹스러운 ‘살아남음의 경험’에 대한 반응이라고 분석한다. 꿈을 통해 트라우마적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트라우마 사건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깨어남의 경험’은 죽음이 아닌 살아남음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이므로 반복은 자신의 살아남음을 청구하고 소유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1996, 62-64).

분명 마티아가 꿈에서 깨어나 경험하는 현실은 어머니 죽음이 자신의 현실에 미친 파괴성이며 제대로 응답하기에 너무 늦은 상실임을 일깨운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각성을 통해 마주하는 현실은 모녀간의 분리 불가분한 근원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응답의 책임감을 일깨워주었다. 꿈을 통해 부재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캐루스의 언급처럼 단순히 경험적 현실을 목격하고 인지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 트라우마로부터 살아남은 자에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책임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¹²⁾

IV. 결론

유년기에 내전을 경험한 ‘50년대 세대’인 마투테 작품에 나타나는 유년의 트라우마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유년 초기에 각인된 인상은 의식적

12) 작품에서 ‘깨어남’의 모티브와 관련된 장면은 여러차례 제시된다. 보르하를 배신한 후 순수함과 결별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마티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만 알았다. 섬에 도착한 첫날과 마찬가지로 새벽의 회색빛이 창문의 녹색 블라인드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눈을 떴다. 처음으로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방안에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232) 또한 현실과 직면해야 하는 책임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다시 잠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의식을 요구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234)

으로 기억의 층위에 통합되진 않지만 잠복기를 거친 후 강박적으로 사후에 출현한다. 인류의 원시적 체험도 집단의 오래된 역사적 트라우마도 개인 트라우마의 경우처럼 방어 기제의 작동으로 잊혀진 후 긴 잠재기를 거쳐 반복강박의 형태로 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년의 트라우마와 집단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공명하는지 논의하였다. 의식에 통합되지 않은 채 증상으로 발현되는 유년의 트라우마가 부모 유기로 인한 아버지 부재의 트라우마, 마요르카 섬의 반 유대주의 역사, 카인과 아벨 신화로 소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 부재의 근원적 트라우마와 직면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트라우마 증언 윤리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베셀 반 테어 콜크(2020),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제효영 옮김, 을유문화사.
- 수잔 캐벌러 에들러(2009), 『애도: 대상관계 정신분석의 관점』,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지그문트 프로이트(2016),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 이은자 옮김, 부북스.
- Anderson, Christopher L. and Lynne Vespe Sheay(1989),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A Fairy Tale Gone Awry,” *Revista Canadiense de Estudios Hispánicos*, Vol. 14, No. 1, pp. 1-14.
- Caruth, Cathy(2016),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aton, Emily(2014), “Asserting the Female Voice through Echo in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Letras Femeninas*, Vol. 4, No. 2, pp. 183-198.
- Fernández-Babineaux, Maria(2009), “La inversión de las imágenes bíblicas en Primera memoria,” *Romance Notes*, Vol. 49, No. 2, pp. 133-142.
- Frame, Scott Macdonald(2003), “A Private Portrait of Trauma in Two Novels by Ana María Matute,” *Romance Studies*, Vol. 21, No. 2, pp. 127-138.
- Herman, Judith L.(2015), *Trauma and Recovery*, NY: Basic books.

- Matute, Ana María(1961), *A la mitad del camino*, Barcelona: Rocas.
- _____ (2019), *Primera memoria*, Barcelona: Austral.
- Mooney, Susan(2021), “The Counter-Nostalgia Front against Spanish Censorship: Realism’s Affective Mirrors and Double-Voicedness in Early Novels by Miguel Delibes and Ana María Matute,” *Bulletin of Spanish Studies*, Vol. 98, No. 7, pp. 1133-1163.
- Pérez Bernardo, María Luisa(2010), “Infancias desgraciadas en Primera memoria de Ana María Matute,” *Verba Hispanica*, Vol. 18, No. 1, pp. 47-57.
- Schneider, Lauren(2011), “La memoria inexorable: Nada de Carmen Laforet y Primera memoria de Ana María Matute leídas como narrativas de trauma de la posguerra española,” *Nomenclatura: aproximaciones a los estudios hispánicos*, Vol. 1, No. 4, <https://uknowledge.uky.edu/naeh/vol1/iss1/4>
- Sotelo Vázquez, M.(1999), “Primera Memoria de Ana María Matute: La vida es una infancia repetida,” *Revista de Lletres*, Vol. 13, pp. 171–178.
- Squires, Jeremy S.(1998), “A Note on the Chuerta Figure in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Donaire*, Vol. 10, pp. 55-61.
- Stevens, James R.(1971), “Myth and memory: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Symposium*, Vol. 25, No. 2, pp. 198-203.
- Valera Ruzafa, A.(2003), “Un paso hacia la madurez lectora: análisis de dos cuentos de Ana María Matute,” *Didáctica*, Vol. 15, pp. 255–269.

전미연

서울대학교
 miyeonjun@snu.ac.kr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2일

Childhood trauma and repetitive compulsion de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Miyeon, Ju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yeon, Jun(2023), "Childhood trauma and repetitive compulsion de Ana María Matute's *Primera Memori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2), 119-143.

Abstract Ana María Matute is a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50s generation', also known as the 'Children of war'. Although the '50s generation' experienced the civil war in their childhood, the memory of the war remains an indelible scar in their identity formation. Childhood trauma in Matute's novels has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Traumatic impressions made in early childhood are not consciously integrated into the layers of memory, but after a period of incubation, they emerge obsessively afterwards. Whether it is a long historical trauma of a group or an individual trauma, it is often forgotten by a defense mechanism and then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repetitive compulsions after a long latent peri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traumatic aspects of childhood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trauma that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repetitive compulsions in Matute's novel *First Memory*. We analyze the processes of traumatic attachment, doublethink, and reality avoidance used as defense mechanism in the context of oppression and bondage of a Franco bourgeois family. We discuss the history of anti-Semitism against the Chueta on the island of Majorca, and how the trauma of human history resonates with individual trauma through the myth of Cain and Abel. It is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rauma awakening based on the underlying trauma of maternal absence as an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survivor.

Key words Ana María Matute, childhood trauma, historical trauma, repetitive compulsion